

다다노 마쿠즈의 『独考』에 나타난 서양지식

林 泰 弘*

(e-mail : kcjone@hanmail.net)

目 次

1. 머리말	3.3 상도덕
2. 정치적인 문제	4. 문화적인 문제
2.1 국왕	4.1 결혼
2.2 수행원	4.2 복지시설
2.3 국가적인 전략	4.3 건물과 도박
2.4 여성의 사회활동	4.4 하인
3. 경제적인 문제	4.5 학문연구
3.1 공무원과 상업	4.6 시간관념
3.2 무역	5. 맺음말

1. 머리말

다다노 마쿠즈(只野真葛, 1763-1825)는 에도시대 말엽에 활동한 사상가이자 문학가, 저술가로 『옛날이야기(昔ばなし)』(1811-1812), 『동북지방 이야기(奥州ばなし)』, 『독고(独考)』(1817), 『물가를 따라서(磯づたい)』(1818), 『크리스찬 고찰(キリシタン考)』 등의 저작이 있다. 이 글에서는 『독고』¹⁾를 중심으로 그 속에 나타난 서양지식을 살펴보고자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동아시아 근대사상 전공

1) 鈴木よね子校訂, 『只野真葛集』, 叢書江戸文庫30, 国書刊行会, 1994. 『독고』는 Janet R. Goodwin, Bettina Gramlich-Oka, Elizabeth A. Leicester, Yuki Terazawa, Anne Walthall 등이 영문으로 번역하여 “Solitary Thoughts: A Translation of Tadano Makuzu’s Hitori Kangae”라는 타이틀로 *Monumenta Nipponica* (56:1, 2001), 56:2, 2001)에 실었는데, 번역에 이 자료도 참고하였다.

한다.

마쿠즈는 센다이번(仙台藩)의 무사집안 출신으로, 번(藩)의 의사였던 구도 헤이스케(工藤兵助, 1734-1800)의 장녀다. 헤이스케는 1783년에 『붉은 오랑캐 풍문 고찰(赤蝦夷風説考)』이라는 서적을 집필하여 당시의 지식인이나 정치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헤이스케의 저서에 대해서는, 쇼군 도쿠가와 이에시게(徳川家重, 1711-1761)의 총애를 받아 막부의 정책을 담당했던 다누마 오키쓰구(田沼意次, 1719-1788, 집권기간: 1767-1786)가 홋카이도 개발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다.²⁾ 그러나 다누마가 1786년에 실각하는 바람에 헤이스케는 막부사업에 발탁되지 못하고 다다노 집안도 그 후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붉은 오랑캐’는 지금의 홋카이도의 북방에 있는 캄차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지역은 18세기 후반에 러시아가 진출하여 러시아 영토가 되어 있었으므로 『붉은 오랑캐 풍문고찰』이라는 책의 내용은 결국 ‘러시아’에 관한 풍문을 정리한 것이다. 헤이스케는 러시아와 홋카이도를 개발하고 러시아와 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다노 마쿠즈의 사상에 대한 평가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다다노 마쿠즈는 아직 그 사상적인 위상이 정확히 평가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한다면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인 사상가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동시대에 마쿠즈의 글을 읽었던 코쿠테이 바킨(曲亭馬琴, 1767-1848)은 마쿠즈가 한문도 잘 읽을 줄 모르고 근거 없이 너무 과격한 주장을 일삼는 인물로 보고, 마쿠즈의 『독고』 출판 지원을 거부하였다.⁴⁾

이후 근대적인 학문의 시기로 들어와 마쿠즈는 수필가, 시인, 소설을 쓰지 않은 특이한 여류문학가로서의 ‘잡문가’,⁵⁾ 고독한 도전자,⁶⁾ 여성해방의 선구자⁷⁾ 등으로 평가되었다. 또 국학과 경제실학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⁸⁾ 국학자이나 난학자인 사상가,⁹⁾ 유교를 비판한 실학사상가,¹⁰⁾ 효성이 지극한 사상가,¹¹⁾ 자신을 미화시키고 왜곡하였으며, 정신

2) 민두기 편저,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1976, p.156.

3) 아미노 요시히코, 이계환역, 『일본사회의 역사(下)』, 소화, 1997, p.159 참조.

4) 『독고』가 정식적으로 출판된 것은 근대시기 이후의 일이므로, 『독고』가 일본사회에 미친 사상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록(『独考抄録』)이 1817년, 필사본(초록본과 내용은 유사)이 1826년에 각각 필사된 것을 보면, (鈴木よねこ, 「解題」, 『只野真葛集』, 569쪽) 일부 지식인들에게는 『독고』의 존재와 내용이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鈴木よね子, 「只野真葛「奥州ばなし」—異界発見の一過程」, 『都大論究』23, 1986.3, p.51.

6) 門玲子, 「只野真葛その文学と思想—孤独な挑戦者」, 『江戸期おんな考』7, 桂文庫, 1996 참조.

7) 宮沢民子, 「幕藩制解体期における一女性の社会批判—只野真葛の「独考」を中心に」, 『歴史学研究』423, 1975.8, p.17.

8) 鈴木よね子, 「独考」試論—その方法と実学・国学の影響」, 『都大論究』通号24, 1987.3, p.85 등

적으로 다소 불안하였던 여성¹²⁾ 등 평가가 다양하였다. 또 마쿠즈의 『독고』는 영문으로도 번역되어¹³⁾ 구미에서 영문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¹⁴⁾ 최근에는 마쿠즈의 마지막 문장으로 알려진 「크리스찬 고찰」에 대한 논문도 발표되었다.¹⁵⁾

필자는 1994년에 벳쇼 코이치 논문을 번역하면서 마쿠즈 사상을 접했다. 벳쇼 고이치는 마쿠즈를 실학자로 소개하면서 유교 비판가로 소개하였는데¹⁶⁾ 필자는 후에 「에도시대 한 여성 지식인의 유교인식」이라는 글에서 마쿠즈의 사상을 유교비판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교적인 가르침을 자기 사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새로운 현실에 그것을 대응시키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러한 사유방식에 따라 유교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¹⁷⁾

또 「마쿠즈 사상의 형성과정」이란 글에서는 마쿠즈의 사상이 단지 인문학적인 기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신앙적인 바탕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불교에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마쿠즈는 세 차례에 걸친 종교적인 체험을 경험하였는데,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독특한 사상을 구축하였다고 지적한 것이다.¹⁸⁾

그 후에 집필한 「다다노 마쿠즈의 ‘천지간 박자’개념」에서는 『독고』에 제시되고 있는 ‘천지간 박자’개념을 검토하고 그것이 ‘시간’적인 개념, ‘시대’의 개념, 그리고 종교적인 개념을 포함한 것이며 나아가 ‘천지간의 박자론’이라고 할 만한 어떤 체계를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정리하였다.¹⁹⁾ 물론 이러한 박자론은 하나의 완결된 사상으로, 깊이 있게 정리

-
- 9) 前田勉, 只野真葛の思想—国学と蘭学との交錯, 『日本文化論叢』(12), 2004.3 p.55, p.73 참조.
- 10) 別所興一, 「只野真葛の貨幣經濟認識と儒教批判」, 『自然と実学』2, 2002.3 참조.
- 11) 高橋恵, 「只野真葛の思想」, 『年報日本思想史』創刊号, 2002.3, pp.46-47 참조.
- 12) 鈴木よね子, 「近世後期における主体と表現—只野真葛をめぐる」, 『日本文学』, 1995.10, p.51; 鈴木よね子, 「反真葛論—「独考」1件をめぐる」, 『日本文学』36-1, 1987.1, p.27 참조.
- 13) Janet R. Goodwin, Bettina Gramlich-Oka, Elizabeth A. Leicester, Yuki Terazawa, Anne Walthall, “Solitary Thoughts: A Translation of Tadano Makuzu’s Hitori Kangae”, *Monumenta Nipponica* 56:1, 56:2, 2001
- 14) Bettina Gramlich-Oka(2001) “Tadano Makuzu and her Hitori kangae”, *Monumenta Nipponica* 56
- 15) Bettina Gramlich-Oka, ‘Kirishitan Ko by Tadano Makuzu : A late Tokugawa Woman’s Warnings’, *Bulletin of Portuguese-Japanese Studies, Vol8*, Universidade Nova de Lisboa., 2004.6
- 16) 앞의 주석에서 소개한 別所興一の 「只野真葛の貨幣經濟認識と儒教批判」 임.
- 17) 임태홍, 『에도시대 한 여성 지식인의 유교인식-다다노 마쿠즈(只野真葛)의 『独考』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부』39, 2008.11, p.309 참조.
- 18) 임태홍, 「마쿠즈 사상의 형성과정-그의 종교적 체험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29, 2009.1, pp.444-445 참조.
- 19) 임태홍, 「다다노 마쿠즈의 천지간 박자개념」, 『동양철학연구』58, 2009.5.

된 것은 아니었다.

마쿠즈 사상에 관한 이러한 필자의 분석 작업은 물론 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때문이기도 할 것이나, 또 한편으로는 『독고』가 분량에 있어서 매우 짧고, 『독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빈약성’ 때문에, 즉 마쿠즈가 한문 문장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 일본 사상 역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문학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 등으로 인한 ‘빈약성’ 때문에 충분히 깊이 있게 전개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마쿠즈의 『독고』에 나타난 서양지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독고』의 서양에 관한 정보는, 분량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으나, 정치나 경제의 문제, 사회 관습이나 여성과 관련한 문제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그 주된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분석하여, 그러한 서양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 고찰해보기로 한다.

2. 정치적인 문제

2.1 국왕

마쿠즈는 러시아 국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러시아의 관습에는 부럽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그곳의 국왕은 일향종(一向宗)의 교조와 같다. 사람의 시신을 거두는 절 같은 곳은 여기 저기 있지만, 모두 같은 종파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이 없다.²⁰⁾

일향종은 정토진종(淨土眞宗)의 한 종파로, 15세기 말경에 무장봉기(一向一揆, 잇코 잇키)를 하여 20여 만 명의 무장집단으로, 교토 북쪽에 있는 가가지방(加賀國)을 장악하고, 거의 1세기 동안 독립적인 자치정부를 형성하였다.²¹⁾ 이 집단은 오다 노부나가와 일본 통일을 위해서 정복전쟁을 전개하고 있던 1580년경, 노부나가 군대의 공격을 받고 그 세력이 약화되어 결국 멸망하였다. 이 교조를 법왕(法王) 또는 법주(法主)라고 하는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오사카지역과 교토, 교토 이북의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였다. 이 일향종의 교조와 같다는 것은 정치적인 권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수장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20) 只野真葛, 『独考』(鈴木よね子校訂, 『只野真葛集』, 叢書江戸文庫30, 国書刊行会, 1994), p.276.

21) 무라카미 시게요시의, 최길성번역, 『일본의 종교』, 1993, pp.108-109참조.

러시아는 10세기 말(988년)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였는데, 나중에 그리스도교는 러시아에서 국교로 발전되었다. 이 그리스도교를 러시아 정교(正敎)라고 하는데 15세기 중기에 비잔틴제국이 멸망하자, 러시아는 그리스도교의 정통 후계자로 자칭하였다. 러시아를 강국으로 이끈 계몽군주 표트르대제(1672-1725)는 서유럽에 가서 직접 근대적인 선진문화를 체험하는 가운데, 서양의 강국들이 교회를 국가에 예속시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러시아 정교의 국교화, 세속화를 추진하였다.²²⁾ 이러한 정책으로 러시아의 최고 통치자 차르는 국가원수로 3권을 장악하고, 러시아 정교의 수장까지 겸하게 되었다. 나아가 절대자로서 차르는 ‘하늘에서는 하나뿐인 태양이 빛나고, 땅에서는 러시아의 차르가 빛난다.’고 하는 반신 반인적(半神半人)인 위치까지 추앙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마쿠즈에게 전해진 것이다.²³⁾

마쿠즈는 또 인용문에서 또 러시아에는 하나의 종파만 있어서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본은 『독고』를 집필하던 1817년 당시 유교가 관학화되어 있었으며, 정토진종, 일련정종 등 다양한 불교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서구에서 전해진 천주교세력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고유의 신도도 있었다. 다양한 종교 세력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러시아의 사정을 소개한 것이다.

2.2 수행원

무사집안의 출신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무사계급의 상황을 항상 안타까워했던 마쿠즈는 러시아 정치인의 행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다.

(러시아에서 온) 아담 이야기로는, 일본에서 (높은 사람은) 수행원이 많이 따른다고 말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을 거라고 한다.²⁴⁾

국왕에게는 그 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바치려 한다고 들었다. 여러 훌륭한 관리들도 수행원을 데리고 다니지 않고, 국왕만 다섯 명 정도의 수행원을 데리고 다닐 뿐이다.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시가지를 걸어 다닌다고 한다.²⁵⁾

존경받는 국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렇기 때문에 수행원이 적어도 훌가분하게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쇼군의 경우 행차를 하면 수량

22) 석영중, 『러시아 정교 - 역사, 신학, 예술』,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p.112 참조.

23) 김학준, 『러시아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5, pp.93-96 참조.

24) 只野真葛, 『独考』, p.276. 인용문의 ()는 필자의 주석임. 이하 같음.

25) 只野真葛, 『独考』, p.276.

은 수행원이 따른다. 2대 쇼군 히데타다(徳川秀忠, 1597-1632)는 닛고(日光)에 행차하는 데 5만 여명의 하인을 데리고 간 적이 있다.²⁶⁾

또 당시 에도시대에는 각지의 영주들이 에도에 가서 교대로 근무를 하는 참근 교대(參勤交代)제도가 있었는데, 이때 영주들이 이동할 때는 서로 경쟁하듯 수 백명, 수 천명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동하였다. 때문에 필요이상의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마쿠즈 자신이 센다이번 영주의 부인을 직접 모시기도하고, 또 자신의 부친이나 신랑이 영주를 모시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²⁷⁾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간소한 러시아 관리들의 행차는 마쿠즈의 주의를 끌었던 것 같다.

2.3 국가적인 전략

마쿠즈는 또 일본인들의 시야가 너무 짧은 것을 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천박하다고 한탄하는 이유는, 책을 펴고 중국이나 일본의 옛날부터 있었던 일을 단지 알기만 하면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아버리고, 국가 전체를 되돌아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중략) 문자를 옆으로 쓰는 나라가 하는 것을 배워서, 어떤 뜻을 이어가며 국가 전체를 잘 되돌아보아, 외국의 시선에 부끄럽지 않은 것을 피하고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 텐데.²⁸⁾

문자를 옆으로 쓰는 나라는 마쿠즈의 경우 대개 러시아를 지칭하지만, 서구의 국가들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를 배워서 국가 전체를 되돌아보는 정책을 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들 서구 나라는 그렇게 한다는 뜻이다. 또 이러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옛날의 말이 세상에 퍼져 알려지게 된 것도, 옛날의 말을 좋아하는 지식인들이 생각한 바를 버리지 않고 차차로 그 생각한 바를 덧붙여왔기 때문에 훌륭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좋은 일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덧붙여 가면, 아주 멋진 것이 된다.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많은 국가들 전체를 잘 알아야 확고한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²⁹⁾

26) 모로 미야, 허유영 역, 『에도일본』, 일빛, 1990, p232.

27) 門玲子, 「只野真葛小伝」, p.1, p.13,

<http://www.japanpen.or.jp/e-bungeikan/study/kadoreiko.html>, 검색일: 2009.5.27.

28) 只野真葛, 『独考』, p.275.

29) 只野真葛, 『独考』, p.272.

이 글에 대해서 교쿠테이 바킨은 비판적인 시각에서 “마쿠즈의 아버지 구도 헤이스케는 난학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마쿠즈도 어려서부터 가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서, 경솔하게 오랑캐가 행한 바를 칭찬하고 이러한 논의를 하였을 것이다”³⁰⁾라고 하였다.

마쿠즈는 이러한 바킨의 견해와는 달리, 많은 국가들 모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하고 그들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배우자고 하였다. 러시아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서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었다. 18세기 초 러시아는 프랑스,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유럽의 5대 강국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특히 로마노프 왕조의 계몽군주들이 추진한 서양화 노력으로 서유럽의 선진문물을 도입하고 정치, 교육, 산업, 제도 등 각 방면에서 근대국가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³¹⁾ 마쿠즈는 어렴풋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권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4 여성의 사회활동

마쿠즈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삼가 언급하기에 황공스러우나 아마테라스 신은 여성신이다. 또 오키나가다라시(신공황후 - 필자)신도 여성 신으로, 외국을 삼가 복종시키셨다. 시대를 내려가 무라시키부(紫式部)가 멋지게 그려낸 히카루 겐지 이야기보다 훌륭한 글은 없었다. 서양에서 전해진 해부에 관한 책을 보면 여자이면서도 해부를 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렇다면 비록 여자일지라도 어찌 큰 뜻을 품을 수 없을 것인가?³²⁾

태양신 아마테라스 신은 천황가의 조상신으로 일본의 기기신화에 나오는 여신이다. 신공황후는 『일본서기』에 신라를 정벌했다고 나오는 여성으로 가공의 인물이다. 무라시키부는 『겐지모노가타리』를 지은 여성 작가다. 이들의 활동이 있었는데, 왜 일본에서 여성이 큰 뜻을 품을 수 없는가 묻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은 『해체신서(解体新書)』(1774)에 그려진 여성을 보고 그것을 소개한 것이니 러시아의 여성이야기는 아니다. 여성의 활동에 비교적 자유스러운 유럽의 여성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다. 다만 유럽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상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다.

마쿠즈는 ‘해부를 하는 전문가’를 보며, 여성의 큰 뜻을 이야기 했는데 그가 자신의 희

30) 只野真葛, 『独考』, p.272; Janet R. Goodwin 등, “Solitary Thoughts: A Translation of Tadano Makuzu’s Hitori Kangae”, *Monumenta Nipponica* 56:1, p.37의 18번 주에 논자를 바킨으로 본 것에 따름.

31) 차하순, 『서양사총론』, 탐구당, 1986, p.314.

32) 只野真葛, 『独考』, p.273.

망을 세 가지 즉 여성의 모범이 되는 것, 깨달음에 대한 호기심을 푸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을 보면³³⁾ 단순히 그러한 전문직에 머물지 않고 좀 더 정치적인 의미의 여성 활동도 포함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도시대의 여성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적인 활동에는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³⁴⁾ 마쿠즈가 체계적인 한문교육을 받지 못하였듯이, 지적인 교육에서 제약이 있었으며 또 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직업도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양 여성의 ‘해부 모습’은 마쿠즈에게 매우 신선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3. 경제적인 문제

3.1 공무원과 상업

러시아의 경제에 대해서 마쿠즈는 러시아에는 “오곡이 나지 않으니 농민이 없다. 소나 양의 두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일본의 쌀집과 같다”³⁵⁾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상업을 관장하는 사람은 즉 공무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이익을 탐내서 자기 한사람만을 부유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라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것을 원한다.³⁶⁾

또 이어서, 러시아의 관리는 상인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이렇게 소개하였다.

에조(홋카이도) 까지 (난파된) 일본인을 데리고 온 아담의 아버지는 일본의 중앙 관리(若老中)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칸막이 전문 가구점의 총 책임자이며 유리를 판다고 한다. 보다 상급의 중앙 관리(老中)라면 가축 도매상, 또 어떤 관리는 술 도매상 등등과 같이 공무원이 되면 이러저러한 도매상의 책임자가 되어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이익도 적절하게 내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서로 다투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교역을 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³⁷⁾

33) 只野真葛, 『独考』, p.262.

34) 아미노 요시히코, 『일본사회의 역사(하)』, p.153.

35) 只野真葛, 『独考』, p.276.

36) 只野真葛, 『独考』, p.276.

37) 只野真葛, 『独考』, pp.267-277.

러시아의 관리들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상업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다. 마쿠즈가 그들을 소개한 것은 그러한 활동에 의해서 거래가 공정하게 되고 이익도 적절하게 낼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전체가 다투지 않게 되고 부유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개는 당시 일본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마쿠즈는 『독고』에서 상인계층에 대해서 몹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³⁸⁾ 그 자신이 무사 계층의 집안에서 태어나, 또 무사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당시 에도시대 경제는 초기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다. 막부 내부의 재정적자문제뿐만 아니라 관료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무사계층도 지나친 소비생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³⁹⁾ 마쿠즈는 이러한 원인이 주로 상인의 부도덕한 경제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고 비판하였다.⁴⁰⁾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상인의 활동도 관리들이 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마쿠즈는 이렇게 관리가 상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면, 쓸데없이 폭리를 취하거나 부도덕한 상거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가 안정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3.2 무역

무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본의 경우를 소개하고 외국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했다.

외국에서 일본의 특산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금, 은, 동, 철, 수정, 쌀, 소금, 종이, 해삼, 말린 해삼, 담배 등이다. 약으로 쓰이는 물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소금과 사탕은 서로 대응되는 상품인데 소금 쪽이 더 소중하다. (원저자 주 - 소금은 꼭 필요하며 일상생활에 사용한다. 사탕은 약용이며 차에 넣어 먹는다.) 다른 나라에서는 바다가 멀리 있기 때문에 소금이 귀하다. 소금은 눈 대충으로 거래하지만, 사탕은 정확히 계산해서 판다. 일본은 소금이 많기 때문에 일용으로 써도 남으며 그 가격은 매우 싸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다.⁴¹⁾

일본에서는 다누마 시대(1767-1786)부터 이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철, 황동, 인삼 등을 특정 상인에게 전매권을 부여하고 세금을 받고 있었다.⁴²⁾ 이러한 생산품들은 외국에서도 일본의 특산품으로 친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소금이 귀하니, 일본에

38) 예를 들면 只野真葛, 『独考』, p.267의 상인집 딸에 대한 비판을 참조.

39) 민두기편저, 『일본의 역사』, p.152, p.166 참조.

40) 只野真葛, 『独考』, pp.289-290.

41) 只野真葛, 『独考』, p.281.

42) 연민수 편저, 『일본역사』, 보고서, 2000, p.176.

서 많이 나는 소금을 무시하지 말자고 하였다. 다른 나라는 아마도 러시아, 특히 캅차카 반도를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 같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일본은) 춘하추동의 기후가 잘 순환하여 오곡이 풍성하게 열린다. 그리고 바다가 사방에 둘러쳐져 있어서 어류가 많다. 먹는 물건이 풍성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화사하다. 소금을 많이 생산하여 국가적으로 사용하고도 남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소금과 사탕은 서로 대응되는 귀중품인데, 소금을 상품(上品)으로 삼고, 사탕을 하품(下品)으로 삼는다. 이것은 만국에 정해진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소금은 일용에 필요한 것인데, 사탕은 약이나 차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소금을 끓으면 밥 한 그릇도 먹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없는 나라에서는 주의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비싸게 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계산해 싸게 판다. 이것은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점이다. 소금을 국산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⁴³⁾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점은 사람들이 빠르고 긴박한 승부에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첫 번째다. 금, 은, 동, 철 외에 산에서 광석이 많이 나온다. 이것이 두 번째다. (원저자 주 - 많은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매년 나오는 대로 전부 다른 나라에 건네주어 지금은 부족하다.) 다른 나라에는 소금과 사탕을 서로 바꾸는 물건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는 점은 성격이 너무 급하고 마음씀씀이가 단기적이며 생각을 치열하게 해서 치밀한 것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점이다. 당장 좋은 것만을 즐기는 것은 나쁘다.⁴⁴⁾

다누마 시대에는 특히 외국무역에 적극적이어서 무역제한을 완화하였다. 또 금과 은을 획득하기 위해서 동과 해산물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었다.⁴⁵⁾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다. 소중한 광석 보다는 많이 나는 소금을 이용하자고 하는 것이다.

입으로 훑으면 녹아버리는 사탕을, 만 세대까지도 씹지 않는 구리를 주고 사오는 것을 천박한 행동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깔보는 데, 이것은 아주 창피한 일이다. 책을 힘으로 삼는 중국인들은 마음을 엄격하게 하여 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⁴⁶⁾

43) 只野真葛, 『独考』, p.297.

44) 只野真葛, 『独考』, p.281.

45) 연민수 편저, 『일본역사』, p.177.

46) 只野真葛, 『独考』, p.275.

‘다른 나라’사람들은 생각을 치열하게하고 치밀하게 하는데, 일본인도 이를 본받자고 한다. 소금과 설탕을 서로 바꾸고, 중요한 지하자원을 함부로 유출시키자 말자고 제안하였다. 또 나라의 일을 생각할 때는 나라 전체를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에서 무역을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이미 서양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다.

3.3 상도덕

마쿠즈는 또 경제활동을 속이면서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관청에서 외국인에게 제공된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표류한 일본인을 데리고 온 러시아인 아담에게 들었다. 일본의 관청에서 담배로 준 물건들 가운데 박스에 들어있는 담배가 있었다. 일본은 담배가 명산품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주 기뻐다. 그래서 한 대 피워 보려고 서둘러 덮개를 열어보았는데, 위쪽 한 끼풀만 얇게 상품의 담배 잎을 깔고, 중간에는 다른 아닌 하품의 담배 잎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걸 보고 웃고 나서 피지 않고 길에 버렸다고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되어 지금도 기분이 좋지 않다.⁴⁷⁾

이는 단지 선물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크게 보면 무역의 상도덕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다. 러시아인들의 웃음을 사지 않도록 상도덕을 확립하자는 주장인데, 서양인들의 근대적인 상품경제의 한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마쿠즈는 이러한 ‘상도덕’의 문제를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소개한 것은 아니고 단지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일본인의 자성을 촉구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4. 문화적인 문제

마쿠즈는 앞서 소개하였듯이 정치, 경제에 대한 문제 외에도 러시아와 서양의 생활문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1 결혼

아이를 가질 정도가 되어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되면, 짝을 지어주고 싶은

47) 只野真葛, 『独考』, p.275.

남녀를 사원에 같이 데리고 가서 먼저 남자를 사제의 앞으로 불러서 이렇게 묻는다. “저 여자를 그대는 일생동안 같이 함께할 부인으로 결정하였는가?” 이때에 남자의 대답을 듣고 가부를 정하고, 또 여자도 불러서 앞과 같은 질문을 한다. 같은 마음이라면 부부로 정해준다. 그런데 딴 마음이 생긴다면, 남녀 모두에게 중죄를 내린다고 한다.⁴⁸⁾

오늘날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서양식 결혼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마쿠즈에게는 특이한 결혼 모습이었던 것 같다. 특히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두 번씩이나 내키지 않은 결혼을 해야 했던 마쿠즈에게, 신부의 결혼 의사를 확인하는 서양식 결혼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또 서양인들은 결혼하는데 상대방을 스스로 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였다.

또 스스로 혼자서는 마음을 정할 수 없는 젊은이도 있다고 들었다. 그때는 부인을 정하지 않고 좋은 사람의 딸이라 할지라도 잠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마치 매춘부를 고르듯이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부인으로 정한다고 한다.⁴⁹⁾

인용문에서 ‘매춘부를 고르듯이’라는 말은 남녀가 들어서 ‘서로 당분간 사귀어보고’라는 뜻이라고 판단된다.

마쿠즈는 부친이 막부의 홋카이도 개발 사업에 발탁되지 못하여 혼기를 놓쳤다. 부친이 높은 직책을 갖게 되면 좋은 배필을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그것이 무산되자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겨우 소개 받은 사람은 또 너무 나이가 많아서 헤어지고 35세 때(1797년) 다다노 집안에 재취로 시집을 같다. 그러한 연유로 서양식의 결혼 풍습을 부럽게 생각하였던 것 같다.

4.2 복지시설

마쿠즈의 『독고』에는 러시아의 복지시설에 대한 소개도 있다.

러시아에서는 사원에 반드시 넓은 방을 지어, 돌보는 사람이 없는 노인이나 아이들을 거주시켜 사람들이 기부하는 물건을 가지고 부양을 한다고 한다.⁵⁰⁾

48) 只野真葛, 『独考』, p.276.

49) 只野真葛, 『独考』, p.276.

50) 只野真葛, 『独考』, p.276.

러시아는 서구 사회로부터 배워, 교육과 사회복지 진흥에 힘썼다. 특히 카서린 대제(1762-1796) 때에는 학교를 많이 세우고 병원과 고아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⁵¹⁾ 마쿠즈는 어려서 남들을 위해서 살고자하는 뜻을 세우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열심히 도와주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⁵²⁾ 그래서 이러한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소개한 것이다.

4.3 건물과 도박

마쿠즈는 또 러시아의 건물의 구조와 그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삶의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에서는 도박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 나라 사람들은) 품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나라는 층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마치 에도의 기생집처럼 여러 층으로 짓게 되었을 것이다. 부자들은 점점 더 층을 높게 짓는다. 그러나 7층을 한도로 한다. (그 집들은) 창이 있기는 하지만, 유리를 끼워서 바깥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집에 살기 때문에) 일 년에 100일 남짓 피는 초목의 꽃을 감상하는 즐거움이 없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달은 헛되이 허공을 돌며 지붕 위를 비춘다. 이렇다 보니 승부를 즐기는 외에 다른 재미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도박 금지가 매우 엄격하지만, 매달 마음을 억제하지 못한 하층민들이 몰래 도박을 한다고 한다. 슬픈 일이다.⁵³⁾

러시아는 층기 때문에 위아래로 높이 집을 짓고, 그러기 때문에 꽃밭이 없으며 그로 인해 도박이 성하다는 이야기다. 마쿠즈 생각으로는 러시아가 도박을 금지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다른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꽃밭을 감상하는 즐거움은 시를 쓰던 마쿠즈에게는 각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남달리 꽃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어 자기 형제들에게 꽃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었던⁵⁴⁾ 마쿠즈로서는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없는 러시아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 글은 결론에 일본의 하층민들이 몰래 도박을 많이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이글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도박이 갖는 장점을 열거하였다. 즉 도박은, 천지 만물이 어느 것이나 생존경쟁을 하고 있듯이, 경쟁의 게임이며 또 승부를 빨리 결정해주기 때문

51) 차하순, 『서양사총론』, p.320 참조.

52) 只野真葛, 『独考』, pp.264-265, pp.287-298.

53) 只野真葛, 『独考』, p.270.

54) 只野真葛, 「七種のたとへ」(鈴木よね子校訂, 『只野真葛集』, 叢書江戸文庫30, 国書刊行会, 1994), pp.500-507.

에 흥미가 있다는 것이다.⁵⁵⁾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러시아에서 도박이 허락되는 것은 그 사회가 생존경쟁의 현실을 생활에서 즐기고 터득하게 하려는 사회적인 배려라고 이해할 수 있다.

4.4 하인

마쿠즈는 무사집안의 딸이었고, 또 무사집안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하인을 부릴 기회가 많았다. 그녀는 하인을 부리면서 느낀 불만을 토로하면서 러시아에는 ‘하인’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다.

(하인은 주인의) 관용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인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그 하인이 나쁘다고 생각해도 때리기에는 힘이 없고, 꾸짖기에는 별 이득이 없다. (하인은) 도망가는 길, 빠져나갈 구멍을 알고 있어 잘도 달아난다. 봉급을 주인으로 삼고, 고용한 주인을 돈주머니로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을 정면으로 내걸고 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것들을 같이 데리고 사는 것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직 체면만을 생각할 뿐이다. 이것은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하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⁵⁶⁾

이와 같은 글 가운데에는, 러시아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지 않고, 낭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인이 없다는 암시가 담겨져 있다. 반면에 일본은 체면을 중시하고 허세가 심하여 쓸데없이 하인을 고용하여 데리고 다닌다고 하였다.

마쿠즈는 하인을 써봐야 일은 잘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무시하고, 인정머리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인이 비용만 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인이 필요한 무사계층에서 하인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격한 주장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러시아 사회를 예로 소개하고 있다.

4.5 학문연구

마쿠즈는 러시아인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왜 그렇게 훌륭한 문명을 이룩하였을까 하는 문제도 생각해본 것 같다. 러시아인들은 수명이 짧으나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에 대해서 다름과 같이 언급했다.

55) 只野真葛, 『独考』, pp.269-270.

56) 只野真葛, 『独考』, pp.298-299.

오곡이 드물고 문자를 옆으로 쓰는 나라는, 고기를 음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 30만 되면 머리에 백발이 생기고 50까지 살게 되면 장수한 것으로 여긴다. 천황폐하의 나라는 풀에서 나는 열매를 항상 먹기 때문에, 수명은 길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깊지 않고, 멀고 오랜 기간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허망한 일이 많다. 설사 만 살이나 넘게 살더라도, 사람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것을 남기지 않는다면 이득이 없다. 고기를 음식으로 하는 나라는, 30십부터 40사이를 이 세상에서 봉사해야 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독창적으로 특출 나고 엄밀하게 생각해낸 것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인이 따라가지 못한 것도 이루어 낸다. 이는 부러운 일이 아니겠는가?⁵⁷⁾

문자를 옆으로 쓰는 나라, 즉 서양의 나라들이 독창적이고, 치밀하고,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보다 앞선 것을 이루어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것은 마쿠즈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학문연구’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이미 17세기경부터, 즉 마쿠즈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기 200여 년 전부터 서유럽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는 교육과 과학 기술 및 지식에 대한 연구 진흥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과학지식은 주로 응용과 실용중심으로 수용되었으며 생산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서적들이 수입되었다.⁵⁸⁾ 이러한 서적의 수입과 더불어 그러한 지식의 증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대학문’이 서구에서 형성, 발전되고 있었던 사실을 마쿠즈가 알게 되어, 그것을 막연하게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사람들은 수명이 길지만 ‘오랜 기간의 일’을 도모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실용적이고도 현실적인 근대적인 학문이 일본에 없기 때문에 치밀한 연구를 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연구의 성과를 축적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4.6 시간관념

마쿠즈는 서양인들이 시계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어려서부터 ‘주야의 수’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속의 박자로 삼아야 한다. 시각에 따라 변해가는, 인간의 나가고 들어오는 숨과 함께, 떠나지 않는 이 시각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다. 육체가 어디에 숨더라도, 숨과 시각은 서로 달라붙어 이 세상은 변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57) 只野真葛, 『独考』, p.274.

58) 솔긴·꼬쉬만·제지나, 김정훈 등역, 『러시아 문화사』, 후마니타스, 2002, pp.116-117.

다. 외국인들이 시계를 손에,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시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사람은 이래야 되는 것이다. 외국인만 계산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⁵⁹⁾

마쿠즈는 『독고』전편을 통해서 시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⁶⁰⁾ 이러한 것은 일본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생각으로 앞으로 그러한 점을 본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양인들이 시계를 중시하는 관습에 대해서 소개한 것이다.

『독고』에는 ‘시계’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있는 소개는 없다. 다만, 시간을 중시하는 서양인들의 생활태도를 소개함으로써 일본사람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자 하였다.

5.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종합, 정리해 보면 『독고』에 나타나 있는 마쿠즈의 서양지식은 그 성격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에 관한 내용이 많다. 마에다 쓰토무(前田勉)는, 마쿠즈의 사상이 “당시 두 개의 큰 사상적인 조류였던 국학과 난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다”⁶¹⁾고 지적하면서도, 마쿠즈의 난학 사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세하게는 논하지 않았다. 마쿠즈의 난학은 엄밀히 말한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난학’이라고 할 수 있다. 마쿠즈가 『독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양의 나라’는 대개의 경우 네덜란드가 아니고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물론, 서양의 다른 나라를 염두에 둔 발언도 있으나, 그럴 경우 그 나라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이는 원래 『독고』라고 하는 저작의 성격으로부터 기인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저작이 기획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생각’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에 대한 소개 내용도 적고 전체로서의 체계성도 결여되어 있다. 대부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상적 근거로서 거론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일단 제시된 내용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마쿠즈 자신의 사상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

59) 只野真葛, 『独考』, p.306.

60) 마쿠즈가 인식한 시간관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임태홍, 다다노 마쿠즈의 ‘천지간 박사’ 개념을 참조할 것.

61) 前田勉, 「只野真葛の思想—国学与蘭学との交錯」, 『日本文化論叢』(12), 2004.3, p.73.

셋째, 『붉은 오랑캐 풍문 고찰(赤蝦夷風說考)』의 내용과는 그 지향점이 다르다. 마쿠즈의 아버지가 쓴 『붉은 오랑캐 풍문 고찰』의 내용은 러시아에 대한 외교 전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에 따르면 ‘붉은 오랑캐’들, 즉 러시아사람들이 홋카이도나 일본에 사람을 보내고 배를 보내고 있는 것은 통상 목적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 홋카이도를 일본의 직할지로서 편입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쿠즈의 서양 지식, 특히 러시아에 대한 소개는 이러한 『붉은 오랑캐 풍문 고찰』의 취지와는 그 지향점이 다르다. 그녀는 대개의 경우, 러시아 사회, 나아가 서양사회의 ‘근대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즉 ‘근대서양’이라고 하는 선진 사회에, 일본의 제도나 사회 문화를 대비시켜, 일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마 이러한 사회 변혁의 태도는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오시오 츠사이(大塩中斎, 1793-1837), 이쿠다 요로즈(生田万, 1801-1837), 아이자와 세이시사이(会沢正志斎, 1781-1863), 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 1776-1843) 등이 공통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대적인 분위기로 부터의 영향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 다른 점은, 마쿠즈가 주목하고 있던 ‘사회’는 중국이나 일본의 고대 사회가 아니고, ‘서양’ 사회라는 점이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1835-1901)가 태어난 것은, 마쿠즈가 사망하고 나서 10년이나 경과한 뒤였다는 사실로도 그녀의 사상이 얼마나 선구적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논한 마쿠즈 사상의 위상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기로 한다. 마쿠즈보다 50여년 뒤에 태어나 『서양사정(西洋事情)』(1866), 『학문의 권장(學問のすすめ)』(1872),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1875) 등을 발표한 후쿠자와 유키치(1835-1901)와 비교해보기로 한다.⁶²⁾

후쿠자와 유키치는 서양에 대한 소개를 매우 전문적으로 행하였다. 그 분량도 매우 많아 『독고』의 분량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그가 당시의 서양을 소개하는 내용 역시 매우 체계적이고 깊이가 있었다. 반면에 마쿠즈의 서양지식은, 이 논문에 제시된 서양 지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글은 마쿠즈의 다른 저작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대개 다른 저작은 문학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역시 후쿠자와와 비교할 수는 없다. 현재 일본에서 평가되듯이 후쿠자와의 위상이 단연 높고, 그가 서양에 대해서 소개한 공헌은 마쿠즈와 비할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마쿠즈의 서양지식을 분석하는 이러한 작업이 어떠한 의의가 있는 것 인가?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 마쿠즈의 ‘선진성’ 부분을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깊었으며 러시아를 통한 서양이해라고 할 만한 부분에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서양

62) 이 글을 발표한 제33회 한국일본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2009.4.25)에서 질문을 받은 사항인데, 마쿠즈가 후쿠자와 유키치 보다 50여년 정도 앞서 태어났고, 서양 지식에 대해서도 선구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쿠즈의 위상을 후쿠자와 정도로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사회의 제도와 문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는 내용적으로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당시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약했을 것이다. 또 『독고』 자체가 출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사회와 비교하면서 마쿠즈가 제기한 문제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마쿠즈의 사상을 살펴보면, 적어도 우리는 에도시대 말기에, 전문적으로 학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여성으로서 어느 정도 문학적이며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 어떻게 서양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지역적으로는 센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는 한 여성의 지적세계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마쿠즈가 스스로 자랑했듯이 이 『독고』의 내용은 매우 독창적이며 세상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게 생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参考文献】

- 김학준(2005)『러시아사』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p.93-96.
- 모로 미야, 허유영 역(1990)『에도일본』일빛, p.232.
- 무라카미 시게요시외, 최길성편역(1993)『일본의 종교』, pp.108-109.
- 민두기 편저(1976)『일본의 역사』지식산업사, p.156 등.
- 석영중(2005)『러시아 정교 - 역사, 신학, 예술』고려대학교출판부, p.112.
- 술킨 · 꼬쉬만 · 제지나, 김정훈 등역(2002)『러시아 문화사』휴머니티, pp.116-117.
- 아미노 요시히코, 이계황역(1997)『일본사회의 역사(하)』소화, p.153 등.
- 연민수 편저(2000)『일본역사』보고사, p.176 등.
- 차하순(1986)『서양사총론』탐구당, p.314 등.
- 임태홍(2009)「다다노 마쿠즈의 천지간 박자개념」『동양철학연구』58, 2009.5.
- 임태홍(2009)「마쿠즈 사상의 형성과정-그의 종교적 체험을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29, pp.444-445.
- 임태홍(2008)『에도시대 한 여성 지식인의 유교인식-只野真葛의 『独考』를 중심으로-』『일본문화학부』39, p.309.
- 只野真葛(1994) 七種のたとへ、鈴木よね子校訂『只野真葛集』, 叢書江戸文庫30, 国書刊行会, pp.500-507.
- 只野真葛(1994)『独考』, 鈴木よね子校訂, 『只野真葛集』, 叢書江戸文庫30, 国書刊行会, p.276 등.
- 門玲子(1996)「只野真葛その文学と思想—孤独な挑戦者」『江戸期おんな考』7, 桂文庫
- 門玲子(2009)只野真葛小伝, p.1, p.13,
<http://www.japanpen.or.jp/e-bungeikan/study/kadoreiko.html>, 검색일: 2009.5.27.
- 鈴木よね子(1987)「独考」試論—その方法と実学・国学の影響』『都大論究』通号24, p.85 등
- 鈴木よね子(1995)「近世後期における主体と表現—只野真葛をめぐる」『日本文学』, p.51
- 鈴木よね子(1987)「反真葛論—「独考」1件をめぐる」『日本文学』36-1, p.27.
- 鈴木よね子(1986)「只野真葛 「奥州ばなし」—異界発見の一過程」『都大論究』23, p.51.
- 高橋恵(2002), 只野真葛の思想』『年報日本思想史』創刊号, pp.46-47.
- 別所興一(2002) 只野真葛の貨幣經濟認識と儒教批判 『自然と実学』2
- 前田勉(2004)「只野真葛の思想—国学と蘭学との交錯」『日本文化論叢』(12), p.55, p.73 등.
- 宮沢民子(1975) 幕藩制解体期における一女性の社会批判』『歴史学研究』423, p.17.
- Bettina Gramlich-Oka(2004)“Kirishitan Ko by Tadano Makuzu : A late Tokugawa Woman’s Warnings”, *Bulletin of Portuguese-Japanese Studies*, Vol8, Universidade Nova de Lisboa
- Janet R. Goodwin, Bettina Gramlich-Oka, Elizabeth A. Leicester, Yuki Terazawa, Anne Walthall(2001) “Solitary Thoughts: A Translation of Tadano Makuzu’s Hitori Kangae”, *Monumenta Nipponica* 56:1, 56:2

要 旨

本稿は、只野真葛(1763-1825)の『独考(ひとりかんがえ)』(1817)の中に含まれている西洋知識に関して探ってみるものである。『独考』に見られる西洋に関する情報は、分量的には多くはないが、政治や経済の問題、社会の慣習や女性の問題など多方面にわたっている。幾つかに分けて、それを整理すれば次のようである。

第一、ロシアに関する内容が多い。

真葛の思想は、国学と蘭学の二つの交錯する地点にあると言われるが、本稿で考察した真葛の「蘭学」とは、厳密に言えば広い意味での「蘭学」である。彼女が『独考』の中で提示している「西洋の国」は、多くの場合、オランダではなくロシアであるからである。

第二、自分の主張を裏付けるような内容が中心である。

もともと『独考』という書物の性格がそうであるが、その本に含まれている西洋の知識は、西洋の「紹介」ではない。その情報の分量も少なく、全体としての体系性も欠如している。真葛自信が主張したかった思想の根拠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いる場合がほとんどである。しかし一応提示された内容は、その分、真葛の思想においてはたいへん重要な基礎になっていることは確かである。

第三、『赤蝦夷風説考』の内容とは重なっていない。

真葛の父親の著作である『赤蝦夷風説考』の内容は、ロシアに対する外交戦略的な性格が強い。彼によれば、「赤蝦夷」の人々が北海道や日本に人や船を送っているのは、通商の目的による可能性が高い。そこで日本は、この機会を利用し北海道を日本の直轄地として編入し、開発して行くべきであると主張していた。

真葛の西洋の知識、すなわちロシアに対する紹介はこうした『赤蝦夷風説考』の内容とは多少異なる。彼女は多くの場合、ロシア社会や西洋の「近代性」に注目していた。先進の西洋社会に、日本の制度や社会文化を対比させ、日本国を変革したいという立場を取っている。恐らくこうした「変革」態度は、19世紀の前半、大塩中斎(1793-1837)、生田万(1801-1837)、会沢正志斎(1781-1863)、平田篤胤(1776-1843)等が共通に有していた時代的な風潮からの影響であろう。しかしながら真葛が注目していた「社会」は、中国や日本の古代社会ではなく、「西洋」の社会であるということが異なる。福沢諭吉(1835-1901)が生まれたのは、彼女が死んでから10年も経ってからの年であったという事実からも、彼女の思想の先進性が読み取れる。

キーワード；只野真葛、独考、西洋認識、西洋、ロシア、蘭学

투 고 : 2009. 5. 31

1차 심사 : 2009. 6. 13

2차 심사 : 2009. 6. 27